

HEADLINE NEWS

市행정에 첨단기술 도입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보스턴)

미국 보스턴市는 市행정에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New Urban Mechanics’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장 주도로 추진될 이 프로그램은 도로상에 구덩이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센서를 市 공용 차량에 설치하는 사업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24시간 콜센터 운영에 대한 대규모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市당국은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노면 상태를 보여주는 전자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다. 또한 콜센터로 들어오는 민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부서간에 자료를 공유하는 한편 그 내용을 웹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고급 기술 인력을 市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특별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市당국은 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 직속 정보담당관직을 신설해 관련 업무를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www.boston.com/news/local/massachusetts/articles/2005/12/13/city_workers_to_get_technology_update/)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도심 활성화 촉진하는 보행광장 (디트로이트)

도시환경

- ② 교외지역개발 건설업체에 대기오염 비용 부과 (캘리포니아州 샌와킨 밸리)
- ③ 공원면적 확보 위해 개발업자에게 분담금 부과 추진 (마이애미)

도시교통

- ④ 교통정보 제공 위해 민간업체에 휴대폰 위치정보 취득 허용 (미주리州)
- ⑤ 난폭운전 고발 웹사이트 성공적 운영 (워싱턴州)
- ⑥ 대중교통 도착시간 정보제공시스템 市전역 확대 실시 (샌프란시스코)
- ⑦ 무선통신 기능을 갖춘 미래형 첨단버스 차량 공개 (샌프란시스코)
- ⑧ 버스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버스정류장에 TV 스크린 설치 (상하이)
- ⑨ 인터넷을 이용한 카풀 프로그램 실시 (토론토)
- ⑩ 지하철 역사내 승객안내용 인터폰 설치 (뉴욕)

사회복지·문화

- ⑪ 2005년 디지털 도시 순위 발표 (미국)
- ⑫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무료정보 박람회 (시애틀)
- ⑬ 문화여가센터의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시민평가 실시 (덴버)

① 도심 활성화 촉진하는 보행광장 (디트로이트)

미국 미시건주 디트로이트市 도심에 조성된 캠퍼스 마티우스 광장이 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완공한 이 광장은 기존의 자동차도로에서 보행자중심 광장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후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광장에는 정원, 분수, 야간 조명, 콘서트장, 야외 영화시설, 아이스 링크 등을 이용한 다양한 이벤트가 연중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



(www.pps.org/info/newsletter/december2005/motor_city)

(www.pps.org/info/projectexp/campus_martius)

② 교외지역개발 건설업체에 대기오염 비용 부과 (캘리포니아州 샌와킨 밸리)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와킨 밸리(San Joaquin Valley)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교외지역개발 건설업체에 대기오염 저감 비용을 부담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을 제정한 이유는 도시외곽에 저밀도 주거지가 산발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자동차 이용이 증가해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체에 부과되는 비용은 2008년까지 주택 한 채당 781달러며, 이후에는 더욱 오를 예정이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이 주거지를 개발할 때 자전거도로를 만들거나 에너지 효율적인 난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부과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www.fresnobee.com/local/v-printerfriendly/story/11597747p-12329427c.html)

③ 공원면적 확보 위해 개발업자에게 분담금 부과 추진 (마이애미)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는 적절한 공원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개발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 분담금 부과 방안은 현재 시의회의 1차 승인을 받아놓았으며, 2차 승인을 받으면 2006년 1월 15일 이후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마이애미시는 미국 내 12개 고밀 도시 중에서 인구 대비 공원면적 비율이 가장 낮으며, 지속적인 개발사업 추진으로 공원면적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 처해 있다. 시당국은 최근 마이애미시 최초의 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개발분담금을 이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개발업자, 나아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적정하고 공평한 부과방법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www.miami.com/mld/miamiherald/13197671.htm)

④ 교통정보 제공 위해 민간업체에 휴대폰 위치정보 취득 허용 (미주리州)

미국 미주리주 교통부는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휴대폰 위치정보를 민간업체가 취득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에 따라 한 교통정보 제공업체는 곧 휴대폰 위치정보 수집에 착수할 예정이며,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빠르면 6개월 이내에 교통정보를 웹사이트와 도로상에 설치된 가변 정보판을 통해 일반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볼티모어시에서는 휴대폰을 활용한 차량속도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버지니아주, 조지아주 등에서도 유사한 계획이 진행 중이나 실제로 일반시민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www.columbiatribune.com/2005/Dec/20051203News015.asp)

5] 난폭운전 고발 웹사이트 성공적 운영 (워싱턴州)

미국 워싱턴州 고속도로 순찰대가 1년 전부터 운영해 온 난폭운전 고발 웹사이트가 그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시민들은 난폭운전자를 접했을 경우 난폭운전 행태 및 도로 위치를 이 웹사이트에 올릴 수 있었고, 경찰 관계자는 이 내용을 토대로 집중 단속구간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었다.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1,200건의 고발이 있었으며 난폭운전 행위가 많은 도로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고발된 난폭운전 행위는 주로 과속, 위험한 차선변경, 앞차량 근접 운전행위 등이었다.

(access.wa.gov/news/2005/Dec/n2005118_4843.aspx)

6] 대중교통 도착시간 정보제공시스템 市전역 확대 실시 (샌프란시스코)

미국 샌프란시스코市는 최근 대중교통 도착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NextBus 시스템의 市전역 확대 실시에 필요한 예산을 승인했다. 승인된 市 예산은 1120만 달러에 이르며 연방정부가 기(既)승인한 예산 450만 달러도 이번 사업에 함께 쓰일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이루어진 市 예산 감축에 따라 일부 대중교통노선이 폐지되거나 단축되어 대기시간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NextBus 시스템은 1999년부터 일부 노선에 한해 실시해 온 대중교통 정보제공 시스템으로 그 동안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市당국은 2006년 여름까지 트롤리 버스노선에, 2007년까지는 모든 버스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sfgate.com/cgi-bin/article.cgi?f=c/a/2005/11/04/BAGQ8FJ3EB1.DTL)

7 무선통신 기능을 갖춘 미래형 첨단버스 차량 공개 (샌프란시스코)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대중교통 담당기관인 SFMTA(San Francisco Municipal Transportation Agency)는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TS 세계총회에서 市가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미래형 첨단버스를 공개했다. SUPERBUS라고 명명된 이 버스는, 버스 운행 중에도 안정적으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Mobile Internet Cafe라는 기능과 대(對)승객 멀티미디어 위치정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승객은 위치정보 시스템을 통해 탑승 중 버스노선 주변지역에 대한 최신 정보와 환승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버스는 승하차 탑승인원 자료를 자동으로 축적하여 버스운영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www.itsa.org/itsnews.nsf/180c9c506bf5856985256c2d00174a12/808054812ebcdfaf852570b9004faecd?OpenDocument)

8 버스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버스정류장에 TV 스크린 설치 (상하이)

중국 상하이市는 대(對)승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3,000여개 소의 버스정류장에 TV 스크린을 설치할 계획이다. 버스 승객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느끼는 지루함을 덜기 위해 설치되는 이 스크린에는, 각종 오락 프로그램과 날씨정보, 교통정보 등이 제공된다. 특히 다음 버스의 도착예정시간을 알려주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버스에 장착된 GPS를 통해 버스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市당국은 이 사업에 약 3억 위안(3700만 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7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도심부에 약 20km의 버스 전용차로를 새로 설치해 버스 운행속도를 높여 버스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news.xinhuanet.com/english/2005-11/25/content_3832222.htm)

9 인터넷을 이용한 카풀 프로그램 실시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시는 인터넷을 활용한 카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Carpool Zone’으로 불리는 이 웹사이트에서, 카풀을 원하는 통근자가 출발시간, 출발지, 도착지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웹사이트는 최적의 카풀 파트너를 추천해 준다. 특히 흡연 여부, 좋아하는 음악, 성별과 같은 개인적 선호도를 입력하면 통근자의 취향에 맞는 파트너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 카풀 프로그램은 캐나다 주요 대도시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캐나다 교통부가 5개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필요한 예산의 1/3까지 지방정부에 지원해 준다.

([www.smartcommute.ca/files/\(2005-11-22\)_SCA_TO%20Nov%2024%20Release_FINAL_CNW.doc](http://www.smartcommute.ca/files/(2005-11-22)_SCA_TO%20Nov%2024%20Release_FINAL_CNW.doc))

지하철 역사내 승객안내용 인터폰 설치 (뉴욕)

미국 뉴욕시 지하철 당국은 지하철 역사내에 승객 편의를 위해 10여개 역사에 한해 인터폰을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이 인터폰은 주로 역무원이 배치되지 않는 곳에 설치될 예정으로, 승객은 인터폰을 이용해 지하철 사령부에 있는 안내원과 통화하여 지하철 관련 정보를 직접 문의할 수 있다. 인터폰이 설치된 지점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설치되어 안내원이 승객이 처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위급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지하철 당국은 사업비 1억 1700만 달러를 들여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이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이 인터폰을 2007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www.nydailynews.com/front/story/366207p-311745c.html)

2005년 디지털 도시 순위 발표 (미국)

미국 디지털정부센터는 전국 도시를 대상으로 디지털 도시 순위를 발표했다. 평가방법은 무선통신과 광대역 인프라 이용현황, 첨단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수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구 25만 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했을 때, 1위는 텍사스주 코퍼스크리스티(Corpus Christi)시, 2위는 플로리다주 탬파(Tampa)시가 차지했다. 인구 25만 명 이하 도시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1위는 위스콘신주의 매디슨(Madison)시, 2위는 버지니아주의 리치몬드(Richmond)시로 나타났다.

(www.centerdigitalgov.com/center/05digitalcities.php)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무료정보 박람회 (시애틀)

미국 시애틀시는 노인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2006년 1월 27일 열리는 노인정보박람회(Senior Adult Resource Fair)는 건강관리, 교통, 주택, 여가 등 노인에게 유용한 서비스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준다. 이번 박람회는 시애틀 지역 기업과 단체들이 참가해 노인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전시한다. 이 행사는 노인과 퇴직자들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장만과 건강관리 계획을 미리 세우도록 장려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seattle.gov/news/detail_print.asp?ID=5758&Dept=14)

문화여가센터의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시민평가 실시 (덴버)

미국 덴버시는 29개 문화여가센터의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005년 10월부터 덴버시 시민 15,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여가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나 평가와 관련한 의견을 받고 있다. 이 조사는 문화여가센터를 이용하는 시민과 이용하지 않는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정보는 덴버시 문화여가센터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denvergov.org/newsarticle.asp?id=9640)